

우리가 살고자 한 약속을 예식을 통해서 우리 삶에 통합하기

변화와 모호함을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예식을 통하여 어떻게 향상될 수 있겠는가?

팻 코작 수녀, CSJ

달력 혹은 회의일정을 보고 있자면 수도회 리더십 업무는 예전보다 더 복잡하고 더 많이 겹쳐 있고 더 다급해 보인다. 숙고할 수 있는 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궁금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익숙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한 말이다. 치료사 프랜시스 웰리가 국제학교 교사이자 저자인 토마스 허블과의 인터뷰에서 내놓은 논평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수도생활이든 사회 전반이든 익숙함이 *사라지고 있다*. 희미해지다가 사라져버린다.

시야로부터 멀어질뿐만 아니라 만회하기조차 어렵고 혹은 회복으로 부터도 멀어지고 있다. 우리는 온통 새로운 것들에 둘러싸여 있고 때로 예기치 않은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우리를 불안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질문들을 마주하고 있다. 전에는 이 같은 특별한 상황에 있어 본적이 없기에,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면서 예측이 어려운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은 말과 질문을 듣게 되는가.

“우리는 본원을 매각할 필요가 있다.”

“지난 몇달간 너무 많은 회원들이 선종했다.”

“법인을 만들어 앞으로 우리 사도직을 관리해야 하는가?”

“우리는 평신도 동료들과 협력해왔고, 경영권은 물론 여러 시설의 소유권조차 넘기기를 희망한다.”

“너무 늦게서야 커미서리(commisary-같은 소속 회원이 아니면서 리더십을 수행할 회원이 없는 수도회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자-역주)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시대적 통치 구조 방식이 아닐까?”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 많은 리더들의 체험을 정확히 드러낸다. 또한 리더들과 그 회원들에게 있어 익숙한 것들이 정말로 사라지고 있음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획기적인 변화는 수도생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익숙해진 통치 방식, 소통, 국제 관계, 그리고 기후 등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가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명료한 방향이나 결과 없이 “벼랑 끝에 서있는” 느낌이 우리를 조여온다. 이러한 시대와 장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삶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음은 작은 위안이 된다. 불안정한 지형 위에 서서, 새로운 장소인 이곳에서 함께 모여 그들과 함께하도록 회원들을 초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리더들에게 정말 작은 위안이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질문은 어느 한 순간의 숙고 보다는 더 넓은 관점에서 숙고하도록 초대한다.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 안에 뿌리를 둔 가장 깊은 내면의 자아에 다다르고, 그곳에서 우리 앞에 놓인 지평선을 조망하도록 초대된다. 왜 우리는 과거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미래를 보장받았다고 생각했을까? 우리는 진정 그것을 바라는가? 과거에 우리가 보여준 증거는 유의미하고 담대하였지만, 그 시대에 대한 익숙함은-과거의 일이 된 것이 아니라면-이미 희미해졌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기회들을 알아차리려는 기꺼운 마음과, 요구되는 새로운 증거자의 삶을 살아내려는 용기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명료하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여러 수도회들과 작업하면서 이와 같은 순간들에 종종 일어나는 일은, 리더가 되었던 회원이 되었던 누군가는 이를 과도기 즉, “페이지를 넘기는” 시간으로 여길 것이라는 점이다.

누군가는 본원(motherhouse) 상실을 애도하고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혹은 문을 닫는 어떤 사도직이든 그 사도직이 주는 선물을 모아 기념한 뒤 “사도직을

놓아주는 것”을 제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회원들의 선종을 애도하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했었음을 기념하는 공동체 시간을 통하여 회원들이 슬픔과 상실의 시간을 보내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러한 시간을 청할 것이다. 사람들은 물을 것이다. “우리가 이를 위한 예식을 하면 어떨까요?” 왜냐면 “우리는 애도가 필요하니까요.”

이 말이 맞기는 하지만 뭔가를 빠르게 해결하려는 희망을 갖는 의도치 않은 위험요소가 따른다고 본다. 어쩌면 신중하게 계획된 기도 예식을 통해 “그렇게 되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지 특별히 어려운 시기와 장소를 벗어나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인생은 복잡하고 겹쳐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또 한가지 진실은 우리 삶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 가운데 엄청난 다양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소중한 모원을 떠나야 하는 것을 애도하는 것은 너무 긴 복도와, 비어 있는 너무 큰 공간들과 상쾌하지 않은 수많은 양성 기억들을 떠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누군가의 진심어린 감사와 반대될 수 있다. 두 체험 모두 옳다. 누군가에게 이러한 떠남은 어릴 시절 원치 않는 강압적인 이사로 천진함과 안도감과 우정을 뒤로하고 떠나면서 남아 있던 정서들과 예기치 않게 다시 마주하는 것이라는 점도 사실일 수 있다. 사실상 과거의 모든 떠남(move)은 열의와 환대가 특징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억들 즉, 세대간 함께 지내던 집과 안전, 집없음과 소유, 큰 슬픔과 기쁨이라는 체험을 세포에 담고 다닌다. 이러한 체험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신경계에 흡수되어버린 것들로, “난 뱃속에 새겨져 있어”라고 말할 때 인식하는 것들이다.

예식을 통하여 체험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펼쳐지도록 여지를 주고, 우리 삶에서 필요했던 일들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게 된다. 이 같은 체험들을 표면으로 드러내고, 체험을 드러낼 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인지하려면 적절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우리 혹은 타인들이 예기치 않은 눈물과 다정한 모습을 보이고, 강한 상실감 혹은 이 사람의 죽음과 관련이 없음을 알게 되면서 감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장례를 경험했을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현재 상황은 앞선 체험을 떠올리게 하는 환대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이제야 우리의 관심과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치유가 가능해지고 온전해짐으로써, 새로 발견한 더 강하고도 선한 자신과 더불어 미래를 더 잘 직면할 수 있다.

예식을 통하여 문턱에 근접해 있음을 상상하는 가운데, 때로는 문턱이 치워지고 출입구가 열리게 되면서 비전과 더 넓은 의미의 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게 된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러한 확장은 우리를 초월하고 우리 내면도 깊어진다. 우리는 이 경계체험을 통해서 더 크고 더 참된 자아와 마주했고 그 자아와 재회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예식은 진리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된 역할을 한다. 예식을 통하여 취약성, 미완성, 두려움, 혹은 자신의 삶에 있는 잠재력에 관심을 가지면서, 드러낼 준비가 되어 발휘될 수 있는 잠재력을 안전하게 보듬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예식이 통합시켜주고, 우리 삶이 온전함에서 떨어져나가는 것이 줄어들게 된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예식의 통합 가능성을 보면, 예식을 개인적인 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 경계성의 깊은 문턱은 공동의 장소이다. 우리가 겪는 고통 혹은 두려움, 아름다움 혹은 장래성은 결코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증언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 미완성 부분을 갖고 있다. 우리는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과 지혜도 지니고 있다. 후성유전학에 대한 최근 연구를 보면 치유와 온전함에 대한 우리의 공동체적인 헌신에 대한 많은 숙고자료를 제공한다. 우리가 체험하는 고통과 불안정은 개인의 사사로운 체험은 물론 확대가족과 문화와 사회생활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피조물의 상처 입음 혹은 전쟁, 기근, 그리고

억압의 고통과 불안에서 오는 사회적 트라우마를 지닐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세대간의 힘과 우리 조상들의 심오한 지혜는 물론 피조물의 지혜를 지닌다. 신앙이라는 언어를 통하여 우리 각자는 부활 체험을 “아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우리 몸의 세포 속에서 이를 기억한다. 이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안에 있다. 우리의 육화에서 비롯된 기능의 하나로 “뱃속 깊이 이를 알 수” 있다. 이 상호연결성과 자의식, 우리 자신의 치유와 성장이 전인적인 치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할 때—예를 들어 슬픔이나 두려움에 이름을 붙이는 것—오늘날 세계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의해 거의 확실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사랑하는 지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난민들, 포로들, 나무들, 그리고 야생동물들의 죽음도 슬퍼한다. 역으로 새 생명이나 깊은 희망의 체험을 기념할 때—정반대의 징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모든 피조물은 무의식적으로 생명과 활기를 되찾는 것에 끌리게 될 것이다.

경계가 되는 이러한 “문지방” 혹은 “사이 공간”을 알아차리게 되면 파스카 신비도 알아차리게 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취약성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힘은 바로 이 받아들이기에 있다는 역설을 알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결과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이전에 단지 희망하거나 상상하기만 했던 하느님과의 하나됨의 체험 안에서 함께하게 된다. 예식을 통하여 이러한 상호연결됨과 하나됨을 인식한다. 예식은 더욱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촉진하면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모든 것은 하느님과 하나라는 이 진리를 증거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하느님과의 하나됨은 사랑이다. 어쩌면 예식의 궁극적인 역할은 이 하느님의 사랑을 촉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하는 깊은 기도(관상 수련)를 통하여 우리는 예식에 대비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관상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일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지금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다. 우리 자신과 또 온통 우리 주위에 현존하시는 거룩하신 분과 함께 있으면서, 필요한 바들을 영이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것—이러한 것들은 의식의 힘을 수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들이다.

시공간의 확장에 대한 자각과 때로 삶의 단절된 체험은 의식에 대한 갈망과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 다음과 같은 혼란 질문이 따른다: 우리 삶의 서로 다른 조각들을 통합할 수 있는 예식을 어떻게 계획하는가? 온전함을 이루는 예식, 사랑의 에너지와 힘을 심화하는 예식을 우리는 어떻게 촉진하는가?

팻 수녀는 성요셉 수녀회 회원이자 진행자로, 미국과 캐나다 여러 수도회와 함께 일하고 있다.

추천 자료

- 프랜시스 웰러, 격한 슬픔의 끝자리: 비탄을 신성하게 다루다 The Wild Edge of Sorrow: The Sacred Work of Grief, 2015
- 토마스 허블의 프랜시스 웰러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zv6-uktHo0A&t=3s>)